황충이 먹고 또 전갈처럼 찌르고

(계9:1~12)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3.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황충이 먹어치우고 전갈은 찌르고>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이 땅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중에서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경험보다 앞서 구약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 루시퍼에 관한 이야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는 내용으로,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알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서 사도요한 같은 분이 이 말을 몰랐을 리는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고 있고 알고 있었던 현상을 이야기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의 문을 엶으로써, 그 구멍에서부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와 함께 황충이 나온 겁니다. 그 황충의 해로움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고, 전갈같이 쏘는 해로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저갱도 그렇고 우리가 다 들어본 단어들 아니에요?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저갱이 뭐죠?
무저갱(無底坑)은 문자 그대로는 바닥이 없는 구멍입니다. 심연(深淵)인데 바다의 골짜기 같은 해구나 해연이 아무리 깊어도 끝은 있어요. 그런데 무저갱이라는 것은 그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깊이의 구덩이입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 것이고 용도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피조물 세계에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이 사탄과 마귀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심판 이전에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마귀의 존재가 마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귀들과 사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억제되어 있고 갇혀있는 곳이 무저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통제하실 때에 활동을 허락하시지 않는 마귀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감옥 같은 곳이죠. 무저갱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황충이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갇혀 있던 마귀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무저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기분이 가라앉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왜 그렇게 기분이 가라앉아 있어?"라고 한다면, 무얼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까?
우울함이 가득 차있는 겁니다.
우울하다는 것이 뭐예요? 기분이 영 스산하고 무엇에 마음을 붙일 곳도 없고, 마음이 붙잡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기는 이러한 감정들입니다. 우울함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없이 가라앉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방방 뜨네?"라고 한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라앉지 않고 뜰 때의 기분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가라앉음이 있는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반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거룩함은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됨의 속성은 좋게 구분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보다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것이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높이가 끝이 없는 거예요.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이 깊이가 끝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높이가 끝이 없고 좋음이 끝이 없음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끊임없이 좋음이 가속화되고 좋음이 더해지지만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좋음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반대로 무저갱은 끝없는 심연, 끝없는 우울함, 계속해서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마귀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무저갱 친화적 존재라는 거예요. 무저갱의 우울함과 불안과 근심과 스산함과 죽도록 외로운 외로움, 모든 부정적인 고통들이 굉장히 적응이 잘 되어 있고, 그 마귀의 인격 속에 배어들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무저갱의 분위기에 아주 적응이 잘 되고 있는 마귀들이 풀려나와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황충처럼 갉아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성경 요엘서에 이 메뚜기 떼가 나옵니다.
황충은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것인데,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풀과 수목과 밭의 곡식, 나무의 열매 같은 것들은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폭우가 내리는 것도 아닌데 순식간에 없어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살아있는 식물성의 생명체라고는 남아나는 것이 없는 게 메뚜기 떼의 피해 아닙니까?
이런 황충이 사람에게서 갉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뭘 갉아먹는다는 이야기일까요?
갉아먹으면 남는 게 없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쏩니다.

전갈의 권세라는 것은 뭡니까?
전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동 땅이나 아프리카 사막에 살고 있는 전갈 중에 이름이 '자이언트 데스스토커'가 있는데, 한번 찌르면 성인 남자가 2시간 내에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 독성을 갖고 있는 전갈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갈이 자기 몸에 품고 있는 독성을 다른 생명체에 찔러 넣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마귀에게 찔리는 것인데, 마귀가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무저갱에서 나온 존재들입니다.

무저갱 친화적 존재들이라 무저갱의 분위기가 몸에 배인 그런 존재들이 나와서 찌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무저갱의 분위기가, 독성이 그대로 사람의 인격과 마음속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전갈이 꼬리를 통해서 찌를 때에 몸속에 있던 독이 다른 생명체로 옮겨지는 것처럼, 무저갱 친화적인 마귀들이 사람의 인격에 대고 전갈처럼 찌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에 무저갱의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봅니다.
먼저 4절에 황충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을 공격하긴 하는데, 사람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농사짓는 밭에 와서 갉아먹는다든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기업을 일구는데 기업을 갉아먹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간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을 해하게 합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공격하고 나면, 무저갱의 분위기가 완전히 인격을 지배하게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라고 합니다.
이제 내용이 조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지배체재를 벗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귀의 지배체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뭘 갖고 싶다. 이걸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가져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외로움처럼 힘든 것이 없으니까 본성적으로 좋은 관계를 이 땅에서 자꾸 맺으려고 합니다.
땅 바깥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처음으로 맺어야 하

는데 자꾸 땅에서 맺도록 합니다.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관계를 잘 맺기만 하면 됩니까? 또 뭔가를 이루어야 해요.
이 인간 세상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만한 성과를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탄의 지배체제인데 이 지배체제에 십자가를 통해서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없어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없어질 세상이 십자가로 인해서 마음 안에서 미리 없어져 버리고, 오직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과 첫 번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직 성취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은 기쁨과 평강과 성취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해롭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황충이 먹어치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충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뭔가를 갉아서 먹어치우고 맙니다.
뭘 먹어치운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세상이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으로서의 세상이 없고, 평강의 근원으로서의 세상이 없고, 성취의 무대로서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마귀의 지배체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꺼리를 찾았다 할지라도 세상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강을 찾았다고 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평강이 마음에 있습니다.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이룬 성취입니다.
그런데 황충이 와서 마음속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성과(成果), 기댈만한 관계, 내가 만족할만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좋은 가치들을 마음에서 다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은행에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 맺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를 칭찬하고 그를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황충의 피해로 일 년 농사지은 것을 깡그리 갉아먹고 없어진 뒤의 흔적처럼, 내 마음속에 세상에서 이룬 것이 이것, 저것 많이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그 어떤 것도 만족도 안 되고 평강도 안 되고 성취로서의 기쁨도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우울함에 빠집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보면 알아요. 마릴린 먼로가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와 관계를 맺지 못해 안달을 하던 그런 여자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에게 접근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 굴복하고 접근을 하니까. 그리고 그 여자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전 세계 사람들은 마릴린 먼로를 칭송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우리나라에도 와서 미군들을 위문까지 했어요. 그 정도면 이룬 것 아닙니까? 성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황충이 덮친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에서 모든 기쁨의 이유와 모든 평강의 근거되는 관계와 모든 성취를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마음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룬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없고, 사람들은 내가 기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기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내가 모든 사람과 관계를 평강하게 맺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관계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댈 관계가 없는 겁니다. 메뚜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외롭고 괴롭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비하면 여러분은 너무 많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가족이 있었습니까?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어머니 마리아 말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형제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누구도 기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잘못하면 안아줄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걱정을 합니까? 황충이 먹어치워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의 근원이 되고, 평강의 근원이 되고, 성취의 무대가 되어서 성취한 모든 것들을 황충이 먹어치워서 마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저갱에 있었던 마귀들이 와서 우리 인격에 끝을 알 수 없는 걱정과 불안의 전갈의 독을 뿜어내는 겁니다.
도대체 걱정과 불안이 이성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는 걱정 중에서 단 하나도 타당한 걱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던져져서(투기,投企)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어떤 걱정도 우리에게 합당한 걱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황량한 벌판에 기댈 곳이 없이 혼자 있는 것 같고, 지나온 곳을 봐도 이룬 것이 없고, 미래를 봐도 이룰 것도 없고, 뭐 하나 기쁜 것이 없고, 기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내 능력 밖에 있는 것 같고 가라앉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황충이 갉아먹어버렸기

때문이고, 무저갱의 분위기가 마귀를 통해 독침을 찔러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해가 주어지지 않는 자들이 인침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의 근거나 평강의 근거나 성취의 무대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평강과 성취의 근거와 내용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황충 떼가 아무리 들끓어도 그 황충 떼가 먹어치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땅에 대해서 권세를 갖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먹어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황충의 해를 왜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나팔을 부시는 겁니다,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너의 환경이 실제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너의 마음이 기댈 곳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한 이유가, 나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못보고 말아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1절에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라고 나옵니다.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뜻인데, 7절에 이 파괴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라고 나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사기와 의욕이 충천해서 장수들이 말고삐를 잡아당길 때의 그런 기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라는 것은,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7-8절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를 굳이 사람이라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남자였습니다. 여자가 사람 축에 못 들었죠. 그래서 여자를 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합쳐서 사람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약한지, 또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아서,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아서 사자처럼 공격해 들어갈 때에, 어디가 급소이고 약점인 줄을 알아서 그쪽을 치명적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약점이 뭐고 급소가 뭡니까?
사람은 기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만족함이 주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풀려나와서 기쁨이라고 설정해 놓은 모든 것들을, 마귀의 지배체제에 속아

서 그것들에 기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그 기쁨의 근거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기쁨의 근거가 없어졌으면, 하늘을 보면 좋고, 하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지요.
9절에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라고 나옵니다.
가슴에는 호심경을 달았어요, 가슴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공격해서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쳐 넣는데도 거기에 자비심이라든지 동정이 없는 거예요. 철 심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괴로움이 전달되지 않게 하는 호심경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 황충들이 날아서 사람에게 접근할 때에 마치 전쟁에서 말발굽으로 모든 마을을 짓밟으면서 인정사정없이 무자비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다섯 달 동안’이라는 것은 봄철부터 가을까지 사는 메뚜기의 살아있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괴로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결국 나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나팔소리는 들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경이 그렇게 나빠서가 아닌데,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우울함이 생기고 기쁨이 없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도대체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 주어지면 메뚜기 떼가 와서 너희 마음이 기대고 있는 것들을 먹어버린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황충의 피해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안 마귀의 지배체제 아래에서 마귀가 속여서 만들어 놓은 기쁨의 근거를 기쁨으로 알고 기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들어서 마귀의 지배체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체제가 무너질 때에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그 지배체제에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살이 썩어 들어갈 때에 마취시키지 않고 칼을 대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재난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지배체제에 동화되어 있고 나의 살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체제에 재앙을 내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없이 마귀의 지배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고백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끝내고 십자가를 밀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쥐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은, 재림 때에 없어질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그의 마음속에서 미리 없어져버리고, 이제 이 세상은 완전히 똑같은 세상이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의 세상으로써, 사명의 세상으로 다시 주어져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닥이 없는 우울함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잠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심연이 없는 무저갱의 우울함이 아니라, 끝이 없는 거룩하심의 보좌인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그 좋음과 기쁨, 그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생각할수록 아찔하면서 동시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몰랐다면 우리는 날마다 황충의 피해 아래에서 전갈의 독에 쏘이면서 무저갱의 분위기 속에 압도되어 살았을 자들을 구해주시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이렇게 앞서서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